

청년 문화예술인의 도전과 성장,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 8. 12. 최휘영 장관,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청년들과의 간담회 주재
- 창작, 활동 여건과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듣고 정책 방안 모색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8월 12일(수) 오후 2시, 아트코리아랩(서울 종로구)에서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창작, 실연, 기획 등의 과정에서 마주하는 현실을 직접 듣고, 그들에게 필요한 정책과 지원 방향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간담회에는 오케스트라 단원, 국악 창작자, 연극배우, 시각 예술인, 예술 전공 대학생, 독립영화 감독, 인디게임 개발자, 웹툰 작가, 인디밴드 멤버, 예술·콘텐츠 분야 창업자 등 문체부 지원사업 참여 경험에 있는 다채로운 이력의 청년 11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각자 분야에서의 활동 경험과 성과, 어려움, 앞으로 필요한 지원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최휘영 장관은 “청년들이 문화예술 현장에서 마주하는 고민을 가감 없이 듣고, 이를 정책에 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눌 이야기를 바탕으로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	책임자	과장	박소정 (044-203-2041)
		담당자	사무관	이은희 (044-203-2522)